

영인선교(靈引宣教)

2025. 04. 14 (제88호)

하영인이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하고자 하는 최진호 선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영인선교(靈引宣教)는 최진호 선교사의 선교통신입니다.
여러분도 영인선교사입니다.

1. 태국서부지역 선교비전트립 다녀오다



선교비전트립 출발전 교회 앞에서

지난 4월 6일(주일)부터 7일(월)까지 중국어예배부에서 태국서부지역 선교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이 짝크리왕조 개국기념일인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여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월요일까지 시간을 잡아 다녀 온 것입니다.

이번 선교비전트립은 제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안식년을 가지면서 태국 여러 지역, 특히 태국의 동서남북 지역 가운데 이웃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곳을 답사하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번 선교비전트립을 비롯하여 금년에 모두 세 차례의 선교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선교비전트립은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태국서부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5월 4(주일)-5일(월)엔 캄보디아와 접경하고 있는 태국동

부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침 5월 4일 주일이 태국 국왕 즉위 일로써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는 태국 동북부지역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비전트립은 작년 말 중국어 알파코스를 마치고, 또 지난달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세계중국인알파코스를 다녀오면서, 그리고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한 제2기 중국어알파코스와 두달개 양육반을 수료한 성도들을 위한 아웃리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체 11명이 교회의 15인승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매우 편리했습니다. 주일 성찬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두 시간을 달려 5시 30분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깐짜나부리 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엔 저희 사판랴양교회가 개척한 깐짜나폰 교회가 있는데 일정상 다음날인 월요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서둘러 깐짜나부리 도의 북부지역에 있는, 역시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는 쌍클라부리로 4시간을 달려 밤 10시 30분 맥마이 호텔에 도착해 1박 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깊은 산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일어나 6시쯤 호텔에서 가까운 카오람 호수와 몬 다리(태국에서 가장 긴 850미터 길이의 목조 다리)를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주민들 대부분이 소수민족인 몽족으로 오늘 공휴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기념품 가게들을 열고 손님 맞기로 분주하고,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모두 알록달록한 그들의 전통복장을 하고 머리엔 높은 장신구를 쓰고 삼삼오오 둘러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한 후, 7시에 호텔로 돌아가 식구들과 만나 식당에서 경건회를 갖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했을텐데 모두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일행을 인솔하여 미리 답사한 몬 다리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몽족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아이들에게 짧지만 복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비전트립에 참석한 소감을 비디오로 담았고, 긴 목조 다리를 건너 마주하고 있는 몽족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에게 얼마 전 발생한 미얀마 지진으로 이곳에 피해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록 미얀마와 가까운 곳이지만 대부분 단층 집이라 크게 느끼지 못했더니 의아하기도 하고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호텔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태국과 미얀마 변경인 출입국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쌍카부리 몽족 아이들과

태국에서 가장 긴 몬 목조 다리

태국과 미얀마가 마주하고 있는 출입국이 있는 제디쌔웅에는 미얀마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태국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목회자분과 연락이 되어 방문하여 이 지역의 선교상황을 듣고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으로 가는 도중 태국군 수비대의 통제로 변경까지 가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인이나 한국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저도 안식년에 이곳을 다녀왔지요) 중국인들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 목적을 설명하였지만 우리 일행 대부분이 중국인 성도들이라 안타깝게도 결국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지난 1월 중국의 유명 배우가 이 접경지역에서 인신매매조직에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각이 이 접경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합니다. 이 지역 뿐 아니라 매콩강 상류 즉, 미얀마, 태국, 라오스를 잇는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마약, 인신매매, 장기판매 등의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제가 심하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차를 돌려 남쪽으로 다시 세 시간 넘게 달려 칸짜나부리로 왔습니다. 오는 도중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콰이강의 다리와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를 공격하기 위해 콰이강은 물론 미얀마 접경지역 깊숙한 곳까지 철로를 놓았는데 당시 전쟁포로 등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현장입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오후 4시에 마지막 방문지인 칸짜나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돗폰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갓 대학을 졸업한 딸과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밖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교회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목사님 가정과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이곳 칸짜나부리 지역의 영적 상황 등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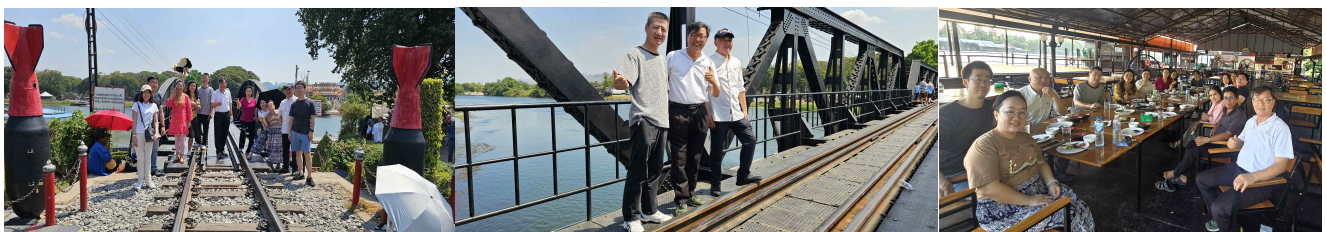
칸짜나폰 교회 앞에서

우돗폰 목사님 내외와 인터뷰

우돗폰 목사님께 작은 선물 증정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목사님은 태국북부지역 치앙라이에서 태어나셨고, 방콕신학원에서 신학을 한 후, 이곳 칸짜나폰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촌부리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후에 이곳 칸짜나부리로 오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모님과 둘이서 눈물과 기도로 시작하였는데, 거의 30여년이 되어 가는 지금 성도 80여명의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20여개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작은 미자립 교회이고, 다른 한 교회와 함께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전도와 제자양육 사역에 힘쓰며, 특히 청소년 사역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목회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어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목사님 가족과 함께 강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우리는 다시 방콕으로 3시간을 달려 교회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 이번 선교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기도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콰이 강의 철로 위에서

우돗폰 목사님 가족과 저녁식사

2. 세계 중국인 알파코스 대회



지난 3월 18일 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중국인 알파코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흥 2005(Revival 2005)” 주제로 전세계 29개국에서 온 약 3,500명의 중국인이 참석한 매우 큰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저희 사관랴양교회에서는 중국어예배부에서 저를 포함하여 6명이, 그리고 교회 알파사역 담당 장로님 1분 모두 7명이 참석했고, 태국 전체로는 27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회가 아침 일찍 시작이 되고, 마지막 날 밤 10시까지 진행되기에 우리 사관랴양교회 중국어예배부 팀과 다른 태국교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하루 전 17일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숙소와 행사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쿠알라룸푸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대회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의 대형 상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독교의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음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중국인 3,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틀 동안 아침



대회장에서 사판르양교회 성도들과

천웨이은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강사 리우통 목사

부터 밤 늦게까지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강사님들을 통한 다양한 선교 강의, 알파사역에 대한 각종 사역 사례 발표, 그리고 집회 마지막날의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번역과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천웨이은 선교사님의 사례발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저녁에는 태국에서 참석한 27명과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세계 알파사역의 총책임자 분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저녁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태국에서의 알파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에서 중국어로는 태국어로는 알파사역을 통해 영혼구원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리우통 강사 목사님과 사판르양교회 성도들

태국 알파사역 리더들과

태국에서 온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이번 선교대회에 함께 참석한 우리 중국어예배부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성도들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로서 함께 참석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억 중국인, 중국교회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움 또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고 일으키시사 세계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제2기 중국어 알파코스를 잘 마쳤습니다.

금년, 중국어예배부에서는 2월과 8월 두차례의 중국어 알파코스 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 주일부터 금년 첫 중국어 알파사역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2기 중국어 알파코스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참석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자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지난 알파코스를 참석했던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돈독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알파코스를 열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주일부터 시작을 한 중국어 알파코스는 4월 5일(토) 성령캠프까지 8주간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에는 매주일 평균 20여명이 참석을 하였고, 그 가운데 불신자 두 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뉘신민 할머니(杜新敏)이시고, 다른 한 분은 왕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라오창사 음식점의 사장인 쯔형제가 인도해 왔는데,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개인적 사정으로 끝까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 속에 이미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뉘신민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형제가 어머니되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참석을 했

는데, 몇주간 참석을 하시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 참석을 하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려니 몸이 너무 피곤하여, 오후 예배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하며 오후 예배에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주 후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눈 후,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어머니가 이틀 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께 복음을 제시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께서는 그저 아들 따라 교회에 오시는 정도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뚜민신 할머니와 아들과 함께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모셔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아예 마당에 서서 “할머니 그동안 알파코스와 예배에 참석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중국으로 가신다니 너무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가시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제가 꼭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하고 물으니 “예, 말씀하세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후,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너무도 뜻밖에도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할머니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도와드리고 다시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라 어린이가 영접기도를 함

하나님께서 덤으로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라오창사 사장 형제의 딸 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엘라는 방콕에서 세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주말을 맞이하여 교회에 온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딸과 함께 교회에 온 형제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딸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뒤편에서 엘라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라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라의 삶을 복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영혼육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 기타 사역

1) 태국기독교총회(CCT) 제7노회 정기총회: 지난 3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방콕신학원 채플실에서 태국기독교총회 제7노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 태국현지선교회(PCK) 중부모임: 지난 3월 31일(월) 본교단 태국현지선교회 중부모임을 방콕에서 가졌습니다.



3) 유튜브 아잔초이 TV 사역: 4월 12일 기준, 아잔초이 TV의 구독자가 1,246명, 업로드한 영상이 975개입니다. 금년 들어 시작한 “아잔초이와 함께 읽는 태국어성경 - 마태복음”을 15강까지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영상들을 작업하여 올리고 있는데, 태국어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4) 사역 이모저모 사진



새신자 환영

환자 심방

아동부 주일학교

생일 파티

기도해주세요

- 1) 태국선교 20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까지 1만 목회자, 1만 교회, 그리고 1백만 성도 달성을 목표로 하는 “러브 타일랜드 111”(Love Thailand 111) 비전이 성취되고, 나아가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태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2) 전도프로그램인 중국어알파코스 사역을 통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고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3)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제2차 두달개 양육반과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두달개 제자반 과정을 통해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4) 5월 4-5일에 계획하고 있는 태국 동부 캄보디아 접경지역 선교비전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오고, 열방을 품게 하소서.
- 5) 유튜브 영상 “아잔초이 TV”가 태국과 중국선교에 관심이 있고 헌신한 사역자들을 위한 “태국 및 중국 선교사역 언어훈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6) 막내 회원이가 금년 5월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최진호 선교사 연락처 및 후원 계좌

연 락 처 : 66-(0)984613660 (태국 방콕 현지 핸드폰) Email : choiynm@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005-232421-02-104 (최진호)